

Issue Comment

2022. 10. 28

진에어 272450

700 억원 영구채 조달 결정

● 운송/조선/기계

Analyst 배기연

02. 6454-4879

kiyeon.bae@meritz.co.kr

RA 오정하

02. 6454-4873

jungha.oh@meritz.co.kr

채권형 신종자본증권 700억원 발행 결정

진에어는 2건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(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)에 대한 발행을 결정하고 70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을 공시함. 각각 150억원(3-1회차), 550억원(3-2회차) 규모이며 표면이자율은 8.60%임. 발행대상자는 키움증권, 한국투자증권, 삼성증권, IBK투자증권, 키움캐피탈, 키움저축은행, 키움에스저축은행임.

발행 후 1년이 지난 2023년 10월 31일부터 기본 고정금리 8.60% + Step up 마진 금리 5.00%가 적용됨. 2024년 10월 31일부터 매 1년마다 직전 이자율에 추가 마진 금리 2.00%가 가산됨.

하반기 결손금이 855억원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 됨

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영구채 발행 결정으로 해석함. 2분기말 기준 자본금 522억원, 자본총계 1,161억원이지만 2021년 8월 20일에 발행했던 2회차 신종자본증권 745억원을 제외하고 자본잠식률을 계산하면 +20%인 상황이었음.

발행 후 1년째 금리 Step-up 조항에 대한 부담으로, 2회차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을 하면서 줄어든 자본총계만큼 영구채에 대한 추가 조달이 필요했음. 3-1, 3-2회차를 통해 700억원을 조달하고 나면 자본잠식률은 -114%로 개선됨. 하반기에 결손금이 855억원 이상 추가 확대되지 않는 한 자본잠식률은 +50%를 넘지 않게 됨.

2022년 동남아 및 일본 여객 재개됐고, 하반기 중 상반기를 상회하는 수준의 결손금 확대폭이 확인될 가능성은 제한적임. 3분기 일본 여객수는 2019년 대비 10% 수준이지만 전년동기대비 1056%, 전분기대비 209%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. 하반기 휴가 시즌에 일본 및 동남아 여행 수요의 계절적 성수기를 고려하면 결손금 확대폭은 상반기 대비 축소될 개연성 있음.

표1 진에어 영구채 발행 내용 정리

(십억원)	3-1회		3-2회	
인수회사 및 인수금액	키움캐피탈 주식회사	5	키움증권 주식회사	14
	키움저축은행 주식회사	5	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	11
	키움에스저축은행 주식회사	5	삼성증권 주식회사	10
	-	-	IBK투자증권 주식회사	20
권면총액	15			55
합계				70
구분	내용		비고	
자금조달 목적	운영자금			
표면이자율 (%)	8.6			
최초이자율조정일	2023년 10월 31일	최초이자율조정일부터 2차 이자율 조정일까지 (X) 최초이자율조정일 전일의 적용금리 (8.60%)+(Y) 연 5.00%를 합산한 고정금리 적용		
2차이자율조정일	2024년 10월 31일	2차이자율조정일부터 매 1년째 되는 날에는 직전 이자율에 2.00%를 가산(추가 마진)		
사채만기일	2052년 10월 31일	30년, 연장 가능		
청약일	2022년 10월 31일			
납입일	2022년 10월 31일			
이사회 결정일	2022년 10월 27일			

자료: 다트전자공시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